‘해남 청정마늘’ 향토산업 육성 탄력

농림부 공모 선정…3년간 30억 지원 융복합 산업 추진
2023년까지 종합유통센터 구축 지역 이미지 제고 기대

해남군이 최근 청정마늘 융복합 사업에 선정돼 관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남군은 12일 “‘땅끝해남 청정마늘 융복합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림식품부 향토산업육성 사업은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향토자원을 발굴, 1·2·3차 산업이 연계된 지역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은 3년에 걸쳐 연구용역, 브랜드개발, 향토자원 권리화 등 사업과 함께 시설, 장비 구축 등이 지원된다.

해남군은 2020-2022년 3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으로 해남마늘의 생산(1차)·가공(2차)·유통(3차) 산업을 연계해 지역 핵심산업으로 자립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네트워킹 구축과 주민 역량 강화 ▲마늘종합유통센터·마늘후레쉬 센터 구축 등이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전국 주산지인 해남 마늘의 안정적 소득 기반 구축은 물론 깐마늘 가공 유통 확대 등으로 해남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국 최대 생산 채소류 품목의 하나인 마늘 산업의 활성화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며 “지역 내 연관 산업까지 파급돼 농촌경제 활성화와 지역 관광에 맞는 새로운 명소로 육성하고 농가소득 창출에도 기여하는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전남 마늘 생산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1만22ha 재배면적에서 1만220t을 생산했다. /해남=박필용기자

영광, 전국 郡단위 유일 청렴도 1등급

청렴교육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시책 추진 효과

영광군이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 보다 1단계 상승한 종합청렴도 1등급을 차지했다.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1등급을 받은 곳은 영광군이 유일하다.

12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종합청렴도 8.66점으로 전년 대비 0.68점으로 상승했다. 내부청렴도는 8.29점, 외부청렴도는 8.80점으로 청렴도 측정을 시작한 이래 최고 성적이다.

군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청렴도 향상 특별대책 수립 ▲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전 직원 청탁금지법교육 ▲청렴실천 캠페인 ▲청렴연극·특강·공연이 함께하는 청렴콘서트 ▲자율적 내부 통제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시책 등을 추진했다.

김준성 군수는 “그동안 3년 연속 2등급을 유지했는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최상위 등급 목표를 갖고 직원들 스스로가 노력해 준 덕분에 1등급을 달성한 것 같다”며 “획득 보다는 수성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1등급을 유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말 까지 영광군의 공사관리 및 감독, 각종 인·허가 처리, 보조사업 경험이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부청렴도와 영광군에 재직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에 대한 내부청렴도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산출했다. /영광=김동규기자

‘여수교육 2020’ 수립 TF 협의회

여수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용대)은 지난 11일 여수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초·중학교 교감, 행정실장, 학생, 여수교육참여위원 등 교육공동체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수교육 2020 수립 TF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학교 및 지역사회, 자자체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해 여수교육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혁신여수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지표별 6개 분과별로 함께 토론하고 개선해야 할 내용들 위주로 진행했다.

오늘 협의회에 참석한 강기태(여수구봉중) 학생은 “교육지원청이 지원하는 진로교육이 진로체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로 설계와 연계돼 학생 스스로 진로에 대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대 교육장은 “배움의 공동체 함께 만드는 혁신여수교육 실현을 위해 TF 협의회에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학생 중심, 현장 중심의 교육 내용이 ‘여수교육 2020’에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진선기자

목포 ‘웃음택시’ 서비스 호평 목포시 친절브랜드 택시인 ‘웃음택시’가 세심한 배려와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다. 웃음택시는 목포시가 택시 종사자의 친절도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택시 종사자 45명을 선발해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만의 고유 친절브랜드 택시다. /목포시 제공

진도경찰,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진도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보배마루에서 2019 진도군 지역치안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회의는 이동진 진도군수, 김상헌 군의회 의장 등 공공기관장 15명을 초청해 치안활동 사항 및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군민에게 믿음을 주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더 안전한 진도’를 만들기 위한 치안 관련 예산 반영, 조례 제정,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예방 등을 논의했다.

진점옥 진도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치안이 평온한 살기 좋은 진도, 관광 진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기자

강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탄력

강진군은 12일 “풍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국·지방비 60억원(국비 42억원, 지방비 18억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광역상수도 배·급수관로 매설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비를 포함해 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되며 2021년까지 광역상수도 배·급수관로 21㎞를 매설해 금강리, 용소리, 풍동리, 덕천리 등 4개 리(10개 마을), 급수가구 427가구, 급수인구 700명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마을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진=정영록기자

광양항 신규사업 국비 2천148억 확보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항만 배후단지 확대 지정 지원

광양시가 내년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과 배후단지 확대 지정 지원 등 광양항 관련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2천148억원을 확보했다.

광양시는 12일 “지난 10일 지역현안사업인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확대지정 지원 사업’ 2건을 반영해 신규사업 국비 2천14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1천900억원(국비 100%)으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2.1㎞의 도로를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서 율촌산업단지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내년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광양시와 여수시의 기존 수송 거리 16㎞를 2.1㎞로 단축해 광양항 인근 3개 시(광양시·여수시·순천시)의 물류비용을 줄이고 황금산업단지, 여수국가산업단지, 율촌산업단지, 해룡산업단지 등과 광양항 배후단지의 생산과 고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확대지원 사업’은 내년 1단계 부지(33만㎡) 매입비 21억원이 반영돼 정부에서 세풍산단 부지 일부를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향후 1단계 부지 990억원(국비 248억원) 투자 및 2-3단계 추가 확대지원을 통해 물류기업과 이차전지 소재기업 등에 최장 50년간 저렴하게 부지를 제공해 광양항이 세계 10위권의 국제 무역항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직원들의 노력으로 큰 성과를 거둔 만큼 곧바로 내년 신규 국고확보대상 사업을 발굴해 설득논리를 개발, 국고 확보에 선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양=허선식기자

영암소방서 공동주택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 위해 안내문 발송·소방교육

영암소방서(서장 박주익)는 12일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활동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발생 층 상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 실시됐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힌 상태로 방범기능 역할을 하고 비상시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옥상문을 자동으로 개방 시켜주는 소방안전시스템으로 유사시 옥상으로 신속한 비상대피가 가능하다.

그동안 공동주택 옥상은 방범 등 이유로 옥상 출입문이 잠겨있는 상태로 있는 곳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가 되지 않아 큰 인명피해가 우려됐다.

영암소방서는 기존 아파트 옥상 출입문의 시건 관리 문제점 보완 차원에서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기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관계자 간담회, 소방교육 등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박주익 영암소방서장은 “아파트는 특성 상 피난로가 제한돼 있는 곳이 있으므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이봉영기자